

제 2 강 사르트르의 의식과 이미지

◆ 의식의 지향성과 상상력(이미지)

▲ 타자의 역설적인 두 가지 기능

타자의 시선은 결국 타자가 있기 때문에 타자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나라는 존재의 승격, 그리고 역설적으로 나의 주체로의 중심을 타자가 끌어가기 때문에 뭔가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죠. 실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나와 타자는 늘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는 갈등과 투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자의 시선은 상반적인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무슨 얘길 하나면, 「달린 방」이라는 자신의 극작품에서 “타자는 곧 나의 지옥이다. 너무나 끔찍한 얘기다. 타자는 나의 희망이 아니고.” 라는 얘길 하면서 타자는 투쟁의 당사자라는 존재론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다른 데서는 다른 얘길 해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에서는 “무엇이건 나에 관한 진실을 얻으려면 나는 반드시 타자를 거쳐야만 한다. 타자는 나의 존재에 필수불가결하다.” 라고 언급하고 이처럼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본인의 본래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존재와 무』에서는 나와 나 자신을 연결해주는 필수불가결한 매개자로 타자를 표현하고, 사르트르는 객체화되고 직체화된 나의 바라보는 알 수 없는 존재로 인해서 결국은 나의 존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사르트르의 타자라는 것은 타자의 시선에서 나의 존재, 본래성을 회복시켜주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줌과 동시에, 타자에 의해서 나의 존재는 또 주체로서의 존재는 박탈당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사르트르의 타자의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의 시선에 의한 나의 바라볼 존재는 타자가 나에게 부여하는 나의 외부의 타자의 가능성에 속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타자는 나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비밀을 소유함으로써 타자는 나를 존재케 하며 바로 이런 사실로 인해 나를 소유한다.

여기서 타자가 소유한 비밀은 타자에 의해 근거지어진 나의 모습이다. 이러한 나의 바라보인 존재를 나의 의식의 지향적 구조로 포착한다면 나는 나의 존재근거를 획득할 대자, 즉자를 결합한 상태의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 사진작품에 드러난 의식의 지향성과 무화작용

이건 이번에 상을 받은 오세라 신인작가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특히 사진 같은데서... 예를 든다면 사르트르가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 앞에서 지나친 것 같은데, 우리의 의식, 우리의 지향적인 의식구조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지나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평범한 일상적인 사진인데, 여러분 집에 웬만한 아파트라든가 아주 전통가옥이 아니고서는 다 있는 거실이 아니라 식당이죠. 주방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 사진작가가 찍은 것은 이

행주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머지는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지향적 의식의 구조는, 사르트르가 예를 들어서 무화라는 의식의 지향적 구조 속에서 카페 애길 해요. 카페에서 우리가 누군가 만날 때 피에르를 만난다고 할 때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나려고 하는 애인, 식구라든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의 의식은 기다리는 사람을 향하게 돼요.

그 많은 사람이 똑같은 식으로 다 우리 눈에 우리 의식에 다 들어온다면 어떨 때는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플 테고 하겠지만 거기에 지향하고 있으면 한 곳에 쳐다보고 있으면 나머지는 뿌옇게 되는 실제로 뿌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지향하다보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의식에 의해 무화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는데요.** 다른 작품의 예도 가능하지만 특히 사진 속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전문 사진작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고 디카나 콤팩트 카메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진을 자주 찍지만 본인이 아마 찍고자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머지 부분은 포커스가 흐릿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결국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의식은 자기가 지향하는 것. 지향하다보면 나머지는 흐릿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그런 작업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진이죠.

여기에 어떤 트릭이나 특별한 기능, 포토샵을 떠나서 일상적인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의 관심, 나의 지향적 의식 나의 목적이라든가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심을 보인다면 나머지는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친근하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사진이고.

제가 정리하다 보니 아까 예를 든 그 부분, 특히 피에르가 친구를 커피숍에서 만날 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찾는 과정을 지나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구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자의 시선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주체에 있어서 필요악이라는 것 같아요. 타자는 지옥이라 했지만 순수 지옥도 아니고 타자가 있어야 나의 존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악이라 할 수 있는데요.

▲ 사르트르에게 있어 상상력이란

상상적인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사실 작품, 예술을 활동하는데 있어서 시선도 중요하지만 상상도 중요해요. 작가가 보이는 현실이라는 가능성 속에서 얼마나 상상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작가의 능력인 것 같아요.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 앞서서 『상상적인 것(L'imaginaire)』을 먼저 출판하게 돼요. 여기서 사르트르는 상상적인 것을 ‘상상하는 의식으로서의 이미지이다.’라고 했거든요.

사르트르가 관심 있는 것은 존재이기 이전에 상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먼저 출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인식활동에서 **지각과 이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상상력**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물론 이전에도 일반적으로 상상력에 대해 많은 철학자들이 애길 했지만, 대표적으로 칸트(Immanuel Kant)는 상상력을 눈으로 본 감각적인 자료들이나 지각된 자료들로 보았지요.

이성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감각 세계와 이성 세계를 연결해주는 것이 상상력이라고 해요. 상상력은 바로 눈으로 들어온, 아마 감각을 통해 들어온 것을 우리 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결합해서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가게도 하고, 중간에서 이성을 정신세계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상상력이라고 하면, 상상력의 기능이 어느 정도이나, 중간에서 그 정도 역할이나 상상력의 능동성이나. 만일 그렇다면 작가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죠. 예술작품들의 상상력이 소극적이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사르트르는 상상력을 어떻게 보냐면 쉽게 말해 지각, 시선과 상상을 딱 분리해서 봐요. 두 개가 협력관계에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선, 지각의 영역은 이거고 상상력은 딱 떨어지는 형태로 봐요.

그래서 후대 철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사르트르는 왜 즉자존재, 대자존재로 존재를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처럼 지각과 상상력도 떨어뜨려요.**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서로 간에 환원 불가능한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상상적인 것』이란 책의 도입부분에서, 피에르에 대한 이미지를 나의 의식 안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닌 반성작업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소여된 대상을 탐색하는 시선의 활동에 의해서 이미지를 이미지로써 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지의 세계와 객체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대상을 모으고 해석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즉 지각하는 의식과 상상하는 의식 작용에 따라 구분된다. 이미지의 세계와 객체의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하나이지만 그것에 어떻게 의식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거죠.

『상상적인 것』이란 책의 부제가 뭐냐면 ‘현상학적 심리학’이란 제목을 달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상상적인 것에 관한 연구도 현상학에 근거해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이죠.

현상학이란 뭐냐면 **지향성 이론에 입각한다는** 뜻이에요. 사르트르는 『상상적인 것』이란 책에서 서양철학이 이미지를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적 구조 중에서 사물화된 물질 쪽에 속한 것으로 생각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의식행위를 보았어요.

▲ 상상하는 의식인 이미지

이미지, 예를 든다면 막스 에른스트(Max Ernst)의 여기 이 그림, 한국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이미지나 또는 달리(Salvador Dali)의 「해변가에 나타난 얼굴과 과일그릇의 환영」과 같은 그림들을 보면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데 사르트르가 말하길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미지를 물질적인 것, 일단은 물론 물질적이죠. 캔버스에 그린 거잖아요.

무엇인가 그려진 물질적인 것을 이미지라 하는데 사르트르는 그게 아니라 **이미지는 물질화 된 게 아니라 의식의 형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미지가 물질화된 것에 반대하고, 이미지는 사물이 아니고 **이미지는 무엇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후설(Edmund Husserl)이 말하듯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이미지는 상상하는 의식이고, 그러한 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해요. 상상하는 의식 속에 있으니깐 여러분이 손으로 만질 수 없죠. 그래서 이미지는 현실이 아니고 비현실, 비존재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너 이미지 봤니?”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아날로공(=유사물)이라 하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전통적으로 이미지라고 불렀던 것은 상상하는 의식이고 그렇다면 전통적인 이미지는 그것을 채워주고 있는 물질인 아날로공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그림이 아날로공이고, 이미지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의식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것, 이게 바로 이미지라는 거예요.

▲ 이미지의 특징들 1

사르트르는 상상적인 것에서 상상하는 의식인 이미지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의자를 지각하거나 상상하거나 할 때 그 의자는 내 의식 밖에 외재하므로 의식이 대상과 관계 맺는 방식만이 다르다는 것이예요.

의자를 지각할 때 의자는 의식의 대상이예요. 의자는 이미 이미지는 하나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지각하는 대상과 이미지의 대상은 동일하지만 의자의 물질성으로서 지향하거나와 그것을 지향하는 의식이 틀리다는 거죠.

대상은 동일하지만 의식과 대상에 관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의자는 의식 속에서도 이미지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의자는 의식 속에서도 이미지 속에서도 상상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미지는 말은 대상에 대한 관계를 지시해요.**

지각할 때에 대상은 현전하지만, 상상할 때의 대상은 부재하는 비현실이라는 것이예요. 여러분이 여기 이 그림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지각하는 의식이 대상을 현전하고 실재하는 것으로 견양하는 의식이라면 상상하는 의식은 대상을 부재하는 비현실화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예요.

상상하는 의식은 지금 이것이 현전하는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대상이 의식 속에 있으니까 존재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눈앞에 부재하고 비현실화하는, 그러니깐 이것이 아날로공이기 때문에 제 앞에 지각하면서 현전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지는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고 볼 수는 없죠. 비현실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이미지는 준관찰형식입니다. 사르트르는 준관찰형식을 지각한 학습과 관찰된 지식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하면서 지각한 학습과 관찰된 지식, **실제 대상에 대한 의식의 유형을 지각하는 의식과 상상하는 의식, 사유하는 의식으로 구분해요.**

우리가 사물을 지각할 때는 관찰한다고 해요. 즉 지각을 통해서 사물의 전체를 결코 한꺼번에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의 대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관점을 선택함으로써 무한한 다른 관점들을 배제함으로써 동시에 무한한 관점을 지평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지각은 수많은 관점에서 관찰된 무수한 나타냄의 종합으로, 이러한 다양한 외관을 종합하여야 할 학습을 필요로 하지만 주사위를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주사위의 정사각형의 여섯 면과 여덟 개의 각을 단번에 머릿속에 떠올려서 사유하는 사물의 한가운데 단번에 들어설 수 있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미지로서의 주사위는 서서히 형성된 지각이 아니라 지식처럼 단번에 온전한 전체로서 주어진다고 봐요. **지각하는 대상은 늘 지각하는 대상을 넘어서지만 이미지의 대상은 결코 상상하는 의식을 넘어서 수가 없어요.** 준관찰현상이란 이미지 세계에서 대상과 세상 사이에 어떤 괴리도 없는 확실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여러분이 주사위를 지각할 때는요. 분명히 주사위는 어느 한 곳의 뒤편 보이지 않아요. 주사위의 다른 면을, 모든 면을 보고서 주사위에 대한 지각적인 차원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면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안보여요.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각은 다양한 외관을 종합하는 학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주사위가 없어요. 하지만 주사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주사위가 없어도 머릿속에서 주사위를 알아요. 그것은 지각하고 상관없는 지각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지식이, 주사위에 대한 지식이 형성이 되어있죠. 그게 개념인데요.

여러분이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떠올려져요. 결국 **이미지라는 것은 개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사르트르의 ‘상상적인 것’

▲ 이미지의 특징들 2

우리가 주사위를 다 보고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 개념화된 지식으로서 이미지는 머릿속에 존재하거든요. 여기에는 다양성을 종합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주사위를 지각하세요, 그러면 지각할 수 없어요.

주사위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각하는 행위와 상상하는 행위 속에서 결국 대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바로 상상하는 의식에 있어서는 이미지와 인식 사이에 괴리가 없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태에서 관찰된 현상이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상상하는 의식의 특징은 대상을 무로 정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을 지각할 때하고 상상할 때 사물을 정립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각하는 의식은 대상을 존재하는 것으로 정립하는 반면에 상상하는 의식은 의식의 절대적인 자유에서 끌어낸 무한의 대상을 부정하고 의식의 지향하는 대상에 대해 무화하면서 무엇인가 있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 현실세계에서 일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자존재로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기투하는 인간의 실존적 운명과의 통하는 것이죠.

지각하는 의식은 대상을 존재하는 것에 정립하는 반면 상상하는 의식은 의식 자체로서 고정되어요. 지각이라는 것은 대상에서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서 대상 앞에서 정립하다보면 거기서 자유롭게 의식이 틈을 만들어서 틈 속에서 자기가 초월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무화작용이 필요 없는 게 지각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상상하는 의식 속에서는 앞에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의식 안에 틈을 만들 수 있고 그 틈이 무의 공간을 만들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 순간을 부정하면서 자유롭게 초월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상상하는 의식의 특징이에요. 이게 인간의 자유롭게 차단되어진 운명이라고도 비슷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 자발성입니다. 즉 상상하는 의식은 반성적 의식의 출현을 요구하는 의지적 행위와는 반대로 비반성적 속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림이나 사진을 감상할 때 지각하는 의식, 관찰하는 사실들, 작품에 놓여있는 상황과 작품의 감각적 소재에 대한 정보와 같은 현실세계를 상상하는 의식으로 무화시킬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상상적인 것과 예술작품

사르트르는 예술작품을 결국 상상하는 의식이 지향한 비현실적, 즉 상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재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아름다움이란 오직 상상적인 것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가치이고 본질적 구조 속에 세계 속에 무화하고 있는 가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런 초현실주의 작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사르트르대로 말하면 상상하는 세계라는 것은 비현실의 세계이고, 비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초현실의 세계, 초현실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 지각된 세계와 상상의 세계의 상관관계

그렇다면 이런 초현실주의 작가들, 막스 에른스트가 그린 여기 이 작품에서 가운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미 새가 아기 새를 꼭 껴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중세에 그려진 도상화인 성모자상을 자기가 차용해서 그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에른스트는 어려서부터 새를 좋아하고 새를 키웠어요. 새를 자기 알터 에고(alter ego), 자기의 타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새를 애착을 가지다가 새가 죽자 굉장히 슬퍼하고 새를 보면 그 죽은 새가 아닌가, 그러면서 새를 통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결국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지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이미 성모자상을 봤던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현실 속에서 보진 않았지만 작품 속에서 봤기 때문이죠.

달리의 「해변가에 나타난 얼굴과 과일그릇의 환영」을 보면, 뭔가 우리의 의식을 무의식 상태에서 세계를 의식의 집착적이거나, 의식을 약간 무의식이나 그런 상태로 느슨하게 놓으면 어떤 사물의 형태가 단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하나 이상의 형태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을 물고려미 보고 있으면 그게 나무인 것 같다가 벌레인 것처럼 보이는 형태, 몽환적인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를 경험하죠.

여기서 보면 과일, 멀리서 보면 해변가 계곡이기도 하고, 아니면 눈이지만 눈이 아니라 월 그랬냐면 조개껍데기, 소라 이런 거죠. 가까이 보면 그것이지만, 멀리 보면 다르게 보이는, 이게 사실 실제 의식이 아주 무언가를 지향하는 이런 실제적인 의식 속에서 보다 의식을 좀 더 흐트러지거나 꿈이나 잠재적인 의식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상태에서는 사르트르도 말했지만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없죠.

해변가에 사람의 얼굴로 된 해변은 없죠. 하지만 이런 작품을 그리고 표현했다는 것은 뭔가요? 이건 서양의 배거든요. 표주박 같은 서양의 배. 실제 현실에서 지각하고 봤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그릴 수 있죠. 이런 몽환적인 세계, 초현실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지각세계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각세계라서 무시하지 않고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없죠.

사르트르는 이런 이미지의 세계, 상상하는 의식의 세계는 결국 지각적인 세계와 독립된, 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이고,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현실과 같은 눈에 보이는 지각의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상상하는 의식이 만들어낸 비현실이란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예술이라는 것은 있는 실재를 그대로 모방하고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작가의 영감이라든가 의도나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것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상상하는 의식에 의해서 비현실적인 모습이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지각된 세계, 현실의 세계와 단절된 초현실의 세계, 알 수 없는 손에 닿지 않는 비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를 심리적으로 꾸렸든 비현실적인 것처럼 묘사를 했든 그렇게 한 것뿐이지 완전히 비현실적인 세계라 할 수 없죠.

사르트르가 그 부분을 놓쳤다고 할 수 있죠.

상상하는 의식에서 무슨 애길 하나면, 샤를로 8 세 초상화 또는 피에르의 사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기 이 초상화 속의 실제 인물, 이건 티치아노(Vecellio Tiziano)가 그린 한 남자의 초상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부재하는 사람이고 비실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증적인 것을 따지면 그림 속에 그 사람은 존재하진 않죠.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의 초상을 그렸을 때 그 사람이 실제 그림 안에 들어가 살아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었고, 이 사람에 대한 티치아노의 전에 봤던 지각적인 요소라던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변형되고 상상적인 것이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지각된 세계와 상상의 세계는 이분법적으로 갈라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존재라는 것은 이 존재를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존재가 현전하기 때문에 부재가 아니라, 현전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애길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르트르가 생각한 상상하는 의식에 대해서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고요.

▲ 사르트르의 자코메티론

사르트르는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에 대한 회화와 조각에 대한 두 개의 평론, 「자코메티의 회화」, 「절대의 탐구」라고 하는 자코메티의 평론을 썼습니다.

여기 이게 자코메티 본인이고요. 이건 자코메티의 작업실의 풍경을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작가가 조각 작품이기 이전에 스케치해서 그린 작품이고, 이건 조각 작품이고, 이건 그림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스케치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서서 걷는 사람, 이것이 자코메티의 유명한 작품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못 먹어서 마른 것 같고 시체가 부패해서 좀비 같은 형태 같은데, 왜 자코메티가 모든 조각을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하나의 형태를 완성하지 않고, 이걸 사르트르는 초현실주의 조각이라 보는데 특히 인간의 **실존적인 고독**, 자코메티의 조각을 보면 다 고독해보이고 다 말랐어요.

튼튼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뇌라든가 실존적인 고통, 이런 것을 작품만 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자코메티의 조각을 초현실주의 조각이라고 하는데, **실존적인 상황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무수히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형태를 딱 떨어지지 않게 조각한 이유가 바로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고 정립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형태, 그래서 얼굴의 코나 눈이 코가 눈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고, ‘이런 작품이 결국은 초현실적인 작품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르트르의 평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자료에 굵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적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자존재에 분할 불가능한 모습, 단일한 모습, 이런 몸들이 다리며 팔이 딱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다린 것 같고 팔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실존의 상황을 추구하고 현실의 공간 속에서 결국 청동으로 만들어진 인물상은 단번에 비현실적이며 초현실적인 것으로 조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인간이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존재하는 대타 존재이면서 작가 자신의 시선을 형상화한 것이죠.

결국 자코메티의 조각상들이 작가 자신이 현재 존재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무화하는, 비어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자코메티의 조각 인물들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즉자상태로 머물지 않기 위해

무화하면서 고독한 실존의 운명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시선에 잡히면 내출혈이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서 인간이 아니라 자동인형객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인형객체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런 비결정적인 형태라는 것은 인간이 실존적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조금씩 움직이고 변화하고 흘러가고, 그런 흐름과 생성 속에 있다는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꼼짝없이 잡혀서 객체화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객체가 되지 않는, 하나의 실존, 주체로써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조각을 했고요.

사르트르에게 이런 이미지, 상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의식의 지향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예요. 어떻게 보면 틀리다고 할 수 없죠. 인간이 폐(肺)이고 형태가 없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기 힘든 까닭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지 않겠느냐, 하는 상상하는 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자코메티가 보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나 형태를 형상화할 수 있었지 이것이 단순히 상상한 의식 속에서만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그 안에서만 비현실적으로 존재하거나 사라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 상상과 지각세계 속의 주체와 타자

우리의 실제적인 지각 속, 생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현존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의 **이미지는 무엇의 이미지**, 그죠?

결국 이런 실존적 이미지는 무엇에 대한, 실존적인 사람의 이미지는 세상이 제공한 것, 지각 세계가 제공한 것이 있어야지만 출현하는 것이므로 이런 상상적인 의식만이 만들어낸 의식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각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서의 타자의 침입’은 주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며 무화될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탈중심화는 이루지 못하고 허무의 장면을 만드는데, 왜냐하면 **주체나 타자는 서로를 위협하는 시선 속에 대상화될지언정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르트르에게서 타자의 시선을 통해 시선이 어느 정도 주체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날지언정, 타자의 존재가 있으므로 해서 내가 중심이 된 시선이 조금은 중심에서 벗어나지만 타자의 의식의 잔여부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탈중심화가 이루어진 시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탈중심화는 안 돼요.

이러한 지각행위 또한 지각하는 행위와의 단절을 통한 상상하는 의식으로서의 이미지는 몸의 감각과 단절된 지향적 의식의 구성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며 여전히 주체의 지배적이고 중심적인 시선의 특징을 밝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에게서 시선이란 것은 결국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의 주체적인 시선이 중심화되는 것을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나진 않고요. 또 사르트르는 상상과 이미지라는 것은 결국 상상하는 의식이 구성해낸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요.

지각세계를 현실세계를 무시하면서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의식철학, 주체중심의 철학에서 늘

주장하는 의식의 구성활동을 사르트르의 상상하는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르트르의 시선, 상상적인 것은 아직은 여전히 주체중심적인, 주체지배적인 사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